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에 나타난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정인희

目 次

- I. 서론
- II. 연변 지역과 연변 조선족
 - 1. 연변 지역에 대한 개요
 - 2. 연변 조선족의 역사적 배경
- III.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 1. 복식의 유형
 - 2. 의생활의 세대차와 지역차
- IV.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한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분석
 - 1.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
 - 2.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분석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중국이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인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조선족 비율을 크게 줄이려고 한다는 기사가

가 얼마 전 보도되었다.¹⁾ 이 문제에 개입된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의 정책 변환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종족 국가인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소수민족 정책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1) 조선일보, 1995년 11월 9일자.

조선족 교포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길림, 흑룡강, 요령성 등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조선족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교포사회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8일 「중국 정부가 최근 동북 3성 등 일대 자치주 대표를 전원 한족(漢族)으로 교체하는 한편 각 자치주별 조선족 숫자를 전체의 30% 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 등 非조선족들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남북한의 영향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자칫 韓-中간 외교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동북 3성의 조선족 비율 감소는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흑룡강성 하얼빈市에서 발행되는 흑룡강 신문 10월 28일자는 李홍우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치학회장(연변대 정치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 「중국 조선족의 위기와 관련, 조선족의 자연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 상황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중국 동북의 '조선족 사회'라는 고유한 대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이에, 의류학의 입장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명실상부한 조선족 집단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에 의해 유지되고, 수용되고, 변모된 복식문화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 '연변'이라는 지역명에는 익숙하지만 연변의 지역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또 연변지역 전통복식의 사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²⁾ 외에, 오늘날 그들의 의생활 문화에 대한 접근이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널리 알려진 까닭에 연변이라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기는 하나, 연변을 포함하는 동북 3성 지역, 즉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은 조선족에 있어서 동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는 곳이므로, 연변 지역의 복식에 대한 고찰은 곧 중국 동북 지역의 복식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변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현황을 파악하며, 이들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록, 현지 방문 연구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나,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 분야 및 연변에서 발표된 문헌 자료 이외에도 사진³⁾ 및 영상자료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현지출신인 및 현지방문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서술에 있어 큰 오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II. 연변 지역과 연변 조선족

1. 연변 지역에 대한 개요

(1) 민족구역 자치정책에 따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내 조선족의 주요한 집중거주지이다.⁵⁾ 민족구역 자치정책은 중국의 민족문제⁶⁾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85만명 선인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비율은 53년 전체인구 대비 60.1%에서 82년 40.3%, 90년 39.5%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하강세는 두만강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외부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李교수**는 「두만강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조선족 밀집지역인 연변-용정-훈춘 등지에 약 2백만 명의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연변의 조선족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2) 김순심, 「중국 연변 조선족의 복식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 연길화책편집위원회, 「연길」(1992).

용정시민족사무위원회 연변관광국 편, 「중국조선족민속사진첩」(중국관광출판사, 1992).

4) 한국영상시스템의 2개사 기획, 「특선영상여행: 백두산관광」(서울: 보라씨네마, 1994).

5)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집필소조,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 재출판(서울: 한울, 1988), p.13.

6) 김동화(1992)는,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주체민족인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규방(1992)은 1985년 통계에 따라, 한족 외에 22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니, 소수민족의 수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김동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역사적 고찰」, 김동화·김승철(편),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2), 재출판(서울: 집문당, 1995), p.10.

김규방, 「연변의 기본정황과 특성」, 김영모(편), 「중국조선족사회연구」(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p.1.

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1991년 말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는 159개의 민족자치구역이 있는데,⁷⁾ 조선족 자치지방으로서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⁸⁾이 있다.⁹⁾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연길, 도문 2개 시와 연길, 돈화, 화룡, 훈춘, 왕청, 안도 등 6개 현이 포함된다.¹⁰⁾

(2) 위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자치주는 북위 41도에서 44도, 동경 127도에서 131도 사이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소련의 연해주에서 하산지구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도문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길림성의 교하, 화전, 무송 등의 현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흑룡강성의 동녕, 영안, 해림, 오상 등의 현과 붙어있다.¹¹⁾

(3) 인구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조선족, 한족, 만족, 회족, 몽골족 등 16개 형제민족이 살고 있다. 1982년에 실시된 전국인구 보편조사에 의하면, 자치주 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인구는 75만 4,567명으로서 자치주 총인구의 40.32%를 차지하고 있다(한족: 57.4%; 만족: 1.93%; 회족: 0.31%).¹²⁾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연변 지역의 조선족 비율은 인구 85만명, 39.5%로, 그 비율은 82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¹³⁾

2. 연변 조선족의 역사적 배경

(1) 연변 조선족의 역사적 특수성

우리 해외교민은 현재 중국, 북미, 일본, 구소련, 중남미, 유럽,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북미나 중남미, 유럽, 중동 지역의 교민들이 거의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주한 1세대 혹은 2세대들이라면, 중국, 일본, 구소련 지역의 거주자들은 1945년 이전에 이주한 이민 2세대에서 3세대들이다.¹⁴⁾

그런데, 중국의 조선족은 소련이나 일본, 미국에 간 교민들과 달리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제 방면에서 중국 내의 다른 민족과 똑같은 평등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¹⁵⁾

일반적으로 중국 민족정책의 기본내용은 ① 민족평등의 견지 및 민족단결의 강화 ② 민족구역 자치의 실현 ③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④ 소수민족 경제 발전과 문화 건설에 대한 지원 ⑤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사용 증시 ⑥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 존중으로 귀납하여 볼 수 있으므로,¹⁶⁾ 중국의 조선족은 이른바 해외로 나간 다른 조선 사람들과는 달리 크고 작은 자치구역에서 자치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대학, 중소학교,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들을 가지고 있다.¹⁷⁾

그리고, 그들은 국가 의식과 민족 의식을 구별하여 지각하여,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7) 김동화, op. cit., p.10.

8) 민족자치구역은 행정구역상의 구, 주, 현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는 주보다, 주는 현보다 광위의 개념이다. 김동화(1992)에 의하면, 1991년 현재 자치구는 5개, 자치주는 30개, 자치현은 124개가 있다고 한다.

9) 김규방, op. cit., p.1.

10)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집필소조, op. cit., p.25.

11) Ibid. p.13.

12) Ibid. pp.18~19.

13) 조선일보, 1995년 11월 9일자.

1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1.

15) 정관룡,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 서문」,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2), 재출판(서울: 집문당, 1995), p.6.

16) 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3#4, 1994, pp.73~98).

17) 정관룡, op. cit., p.6.

있으면서도 심정적으로 완전히 중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2) 조선족의 이주 및 정착 역사

간도(현재 연변에서 돈화 지역을 제외한 부분)로의 조선족의 집단적인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후기인 18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당시의 이동은 주로 10년간에 걸친 육진(함경도) 지방의 흉년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 이주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제시대의 이주로,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가운데 일제시대의 이주자는 만주 전체로 90%이상, 연변지역의 경우 70% 이상으로 추정된다.¹⁸⁾

일제시기 동안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계속 투쟁하며 극심한 가난과 억압에 시달렸다. 일제 패망과 중국의 내란에 걸쳐 조선족은 토비(국민당 정부군) 토벌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연변 지역을 지키는 데 성공하였으므로, 1949년 신중국 창립 이후, 그 공헌으로 비교적 좋은 정치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변대학의 설립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고 각종 조선족의 민족문화 및 민족예술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1950년대 말의 우파투쟁은 지방 민족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강한 민족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족의 활동은 모든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65년에 시작된 문화혁명 기간 동안, 봉건적 유물과 유습의 타파,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의 배격, 자산계급의 비생산적 지식의 배격과 무산계급 교육노선의 주장 등은 조선족 문화의 전면적인 파괴와 주로 지식인으로 구성된 민족지도자의 수난, 교육경시와 폭력적 파괴풍조 만연, 사회적 분열 조장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7년 10월 중국은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청산하면서 좌파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현대화(근대화)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여러 부문에 걸쳐 도입되고 있으며, 서구의 대중문화가 홍콩이나 대만을 매개로, 또는 직접 중국에 침투하고 있다.¹⁹⁾

(3) 조선족의 모국의식

근대화 과정이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중국 조선족의 모국의식과 관련된다. 비록, 그들이 강한 국가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나, 민족소속감은 이와는 구별되는데, 중국 조선족은 적어도 1945년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북한과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이주전 배경이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중국의 민족정책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선어 체계와 문법은 물론 무용, 문학 장르, 의식주 등 여러가지 생활양식에 있어 이들이 민족적 준거로 채택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한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 조선족의 남한 방문과 남한 사람들의 중국 조선족 거주지역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에는 오히려 남한이 북한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준거집단의 변화 또는 이원화는 중국 조선족에게는 문화적 갈등과 변화의 주요 원천의 하나가 되고 있다.²⁰⁾

Ⅲ.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1. 복식의 유형

오늘날 연변 조선족이 입는 옷은 크게 한복, 인

18) 한상복·권태환, op. cit., pp.25~28.

19) Ibid. pp.77~79.

20) Ibid. p.24.

민복, 그리고 서양복(서복)²¹⁾으로 나눌 수 있다.

(1) 한복(韓服)

흔히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정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통복장을 든다. 그 한 예로 조선족 자치주의 선전에는 조선족 복장이 반드시 등장한다²²⁾(그림 1).



(그림 1) 자치주 선전에 등장하는 조선족 복장
(출처: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1984년에 간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자료에서는 조선족의 복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²³⁾

조선족 옷의 특성은 옷섶이 길고 단추를 채우지 않고 고름을 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가랑이를 너르게 만든 바지를 입고 바지의 발회목이 닿는 부분을 대담으로 줄라매며 귀에는 저고리에 색조끼를 받쳐입게 된다. 나들이를 할 때에는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청장년들은 일반적으로 흰 의복은 입지 않고 회색이나 검은색 나는 바지를 입으며 저고리의 깃 위에는 흰천으로 동정을 단다. 젊은 색시나 소녀들이 입는 저고리는 팔뚝, 깃을 고운 비단 천으로 꾸민다.

저고리 고름도 붉은빛, 자주빛, 남빛 비단으로 꾸미는데, 이러한 저고리를 ‘민회장저고리’라고 한다.

늙은 여성들은 흰치마를 입기 좋아하며 머리에 흰천으로 만든 머리수건을 두르는 것이 습관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겹은 비단천에 안은 양털을 댄 등거리를 더 입는다. 중년여성이나 노년여성들은 통치마를 입지 않고 꼬리치마를 많이 입는데, 꼬리치마는 좌우쪽으로 잘게 주름을 잡고 선단을 단, 발뒤축까지 드리우게 만든 치마이다. 여성들이 일할 때에는 통치마를 많이 입는다.

조선족 처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입는 저고리와 치마는 울긋불긋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와 짙은 민족적 특색을 띠고 있다. 어린이들의 저고리의 팔소매는 대부분 칠색단으로 지으므로 어린이들이 입으면 마치 무지개가 드리운 것 같다(그림 2).



(그림 2) 어린이들의 옷차림
(출처: 연길)

조선족의 신으로, 초기에는 대부분 나막신, 갓신을 신었으나, 후에 와서는 짚신, 삼신을 신었

21) 연길시 출신의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조선족들은 서양복을 서복이라 부름을 확인하였다.

22) 한상복·권태환, op. cit., p.208.

다. 고무신을 신은 것은 자본주의적 공상업이 발전한 이후의 일이다. 남자들은 대부분 바닥이 평평한 흰 고무신을 신고 여성들은 대부분 흰코신이거나 하늘색코신을 신는다. 근년에 와서는 바닥이 고무로 된 헝겊신이나 가죽신을 신는다(그림 3).



(그림 3) 조선족들이 신는 신발
(출처: 연길)

전통복식은 한 때 문화혁명 당시 사라졌으나, 10여년 전부터 다시 부활하여, '회고풍'으로 일상적이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명절이나 국가명절, 잔치때 입게 되었다고 한다.²⁴⁾ 즉, 현재 조선족에게 한복은 더 이상 일상적인 복장이 아니며, 거리 어디를 둘러 보아도 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의례생활을 위해 한복이 입혀지는 경우를 보면, 조선족은 조선족의 명절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복을 착용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창립일인 9월 3일과 노인절인 8월 15일 연변 일대는 한복의 물결²⁵⁾이라고 한다(그림 4).



(그림 4) 노인절의 한복차림
(출처: 연길)

또한 혼례복으로는 변함없이 한복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연변의 조선족 신부들은 조선족이라면 반드시 혼례식에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료나 치마저고리의 형태와 길이, 너울의 형태 등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너울은 1940년대에 족두리 대신 사용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치마길이보다 약간 짧은 정도의 길이에 앞이마를 가리는 모양이었다가, 1950년대에는 이마와 앞머리를 노출시키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문화혁명 기간을 겪고난 1980년 이후에는 전대에 비해 너울의 높이가 많이 부풀려져 높아졌으며 화려해졌다.²⁶⁾ 그림 5 를 보면 오늘날의 혼례식 복장을 알 수 있다.

23) 이하,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집필소조, op. cit., pp.250~252 참조.

24) 연길시 출신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이며, 회고풍은 연변 지역에서 복고풍을 대신하는 말이다.

25) 전경수, "중국 동북의 조선족", 「한국문화론: 해외편」(서울: 일지사, 1995), p.61.

26) 김진구·김순심, "중국 조선족의 복식 연구(I): 혼례복에 관하여", 「복식」(20, 1993, pp.191~201).



(그림 5) 혼례복장
(출처: 연길)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복이라고 알려진 인민복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거의 유일한 복장이었으며, 현재는 한족이 주로 착용하나, 조선족의 경우에는 나이든 층에서만 일상복 혹은 작업복으로 이용한다. 또한, 현재 중국에는 특별한 예복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 입기도 한다.²⁸⁾ 그러나, 한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에서의 인민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3) 서양복(서복)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로 남은 양복이 일상 작업복으로 사용되었던 수준²⁹⁾에 비하면, 지금 연변의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복식이 서양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서구화이다(그림 7).



(그림 6) 인민복
(출처: 중국 조선족 민속사진첩)



(그림 7) 거리에서의 서양복 차림
(출처: 특선영상여행 백두산관광)

(2) 인민복

인민복은 중공(中共)의 국민복으로, 옷웃에 주머니가 넷 있고 깃을 세운²⁷⁾ 모양이다(그림 6).

젊은 남자 가운데에는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굽이 약간 높고 창에 쇠징을 박은 유행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원피스나 요즈음 유행하는 바지 또는 치마바지가 젊은 여성

27)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국어대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2), p.2433.

28) 한상복·권태환, op. cit., pp.206~207.

29) 전경수, op. cit., p.61.

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개방 이후 옷감생산의 증가, 외국유행의 도입,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나 국가의 통제 완화애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⁰⁾ 또한, TV, 의상잡지, 달력화보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서구 문화를 접촉하게 되어 그와 유사하게 되었다. 서구의 젊은이들처럼 진종류의 바지와 재킷, 티셔츠, 미니스커트와 같은 캐주얼한 의복이 보급되었고, 이제는 복식에서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³¹⁾

2. 의생활의 세대차와 지역차

복장의 세대차는 서양복의 수용 정도에서 나타난다.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 나이든 층을 보면, 여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한복을 이용하는 한편, 남자들은 거의가 인민복이다. 남자의 전통복장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³²⁾

반면, 젊은이들은 대체로 양복, 즉 간편한 서구식 캐주얼 복식을 착용한다. 그들은 젊은 사람이 인민복을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³³⁾ 젊은 도시 여성이 혹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³⁴⁾

의생활의 지역차는 한복의 착용빈도나 용도에서 나타난다. 즉, 조선족이 모여사는 곳인가 아닌가, 도시인가 농촌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모여사는 연변과 같은 조선족 집거지역에서는 한복을 입는 경우와 횡수가 많으며, 조선족이 한족 또는 다른 소

수민족들과 어울려 사는 산재지역에서는 한복을 입는 경우보다는 인민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³⁵⁾

또, 199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시의 남자 가운데 한복을 가끔이라도 입는 사람은 11%에 불과하였다. 즉, 89%는 1년 내내 전혀 한복을 착용하지 않으며, 그나마 착용하는 사람도 나이든 층 뿐이다. 농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전혀 한복을 입지 않는 비율이 도시 36%, 농촌 25%였으며, 도시에서는 주로 의례용으로, 농촌에서는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⁶⁾

IV.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한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분석

1. 문화주변현상과 외래문화의 영향

(1) 문화주변현상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이 '비교적 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외부 특히 서방사회와의 접촉이 별로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³⁷⁾ 이러한 경향이 곧 문화주변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주변현상(cultural marginality)이란, ① 타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의 문화가 시간이란 변수의 기능에 의해서만 변화되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초기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현상 혹은 ② 어떤 문화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다

30) 한상복·권태환, op. cit., pp.207~208.

31) 김순심, op., cit.

32) 한상복·권태환, op. cit., p.206.

33) 연길시 출신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34) 한상복·권태환, op. cit., p.209.

35) 전경수, op. cit., p.61.

36) 한상복·권태환, op. cit., pp.208~209.

37) Ibid. p.19.

른 곳에 그 문화가 이식되어, 원래의 문화 발생지에서는 이미 그 문화가 사라졌는데도 이식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³⁸⁾ 즉, 주류문화와는 동떨어진 주변의 문화 혹은 중심지가 아닌 주변에 잔존하게 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주변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20년대와 30년대 조선의 삶의 모습이 주변부인 연변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제주 문화가 일본 땅에서 보존되는 경향이라든지, 60년대에 브라질에 이민간 사람과 80년대에 이민간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적인 충돌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등이다.³⁹⁾

한편 해외교포들이,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버린 것들까지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경우를 문화동결현상(cultural frozen phenomena)이라 일컫기도 하는데,⁴⁰⁾ 이는 결국 문화주변현상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2) 외래문화의 영향

문화주변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빠른 변화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관습들을 연변 조선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구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연변 지역은 주거나 의례, 육아방법 등의 관습 뿐만 아니라 의생활의 측면에서도 전통의 고수성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변 조선족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또다른 변화의 측면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화 자체의 연관성과 계승성을 놓고 보면

중국의 조선족은 자체 민족 문화를 형성할 때의 식구조 면에서는 조선의 고유문화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체문화 형성의 터전과 기반으로 삼았으나, 새로운 생활환경, 이질민족 문화와의 갈등과 수용, 청정부의 봉건적인 문화동화정책의 실시, 개척민 자체의 생의 욕망과 생활에 대한 애착심 등 다방면의 원인으로 하여 미국땅에서의 토착화, 이질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그런 의미에서 연변의 조선족에게 노출되었던 상이한 문화로는 전통적인 한족(漢族)의 문화, 공산주의(共産主義)문화, 그리고 서구문화를 들 수 있겠다. 이들 중 한족의 영향과 서구의 영향은 문화접변이론으로, 공산주의의 영향은 문화의 발명과 이에 수반된 국가적 강제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상이한 두 사회의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1차적인 혹은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문화접변(文化接變; accultur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화접변은 하나의 선택적인 과정(a selective process)이어서, 받는 쪽에서는 전파되어 온 요소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전파된 것이 다른 사회에서 모두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쪽의 생활조건에 맞는 것만이 선택적으로 살아남는 것이다.⁴²⁾

즉, 문화접변이란 곧 문화들 간의 접촉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⁴³⁾ 그런데, 조선족이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한족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문화접변 현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족을

38) 전경수, op. cit., p.31. 참조.

39) 전경수, "해외편 머리말", 「한국문화론: 해외편」(서울: 일지사, 1995), p.14.

40) 조복희·이재연·윤종희, "연변 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31#1, 1993, pp.35~44)에서 이광규, 「세계 속의 한민족, 선택받은 한민족」(서울: 우리문화사, 1992)을 재 인용함.

41) 허명철, "중국 조선족 문화에 대한 반성과 재건", 김동화·김승철(편),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연변: 연변 인민출판사, 1992), 재출판(서울: 집문당, 1995), p.140~144.

42) 한상복·이문웅·김광영, 「문화인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pp.405~406.

43) Ibid. p.405.

불일 필요가 없겠지만, 서구문화를 연변 조선족에 있어서의 문화접변의 대상으로 꼽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지금까지 흔히 한 사회의 서구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채용되어 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식 변천사를 연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⁴⁴⁾

이러할 때에, 근대화 이론은 소위 전통사회의 모든 특성과 결점들이 근대화 작업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특성을 버리고 결점을 고쳐서 새로운 성격을 가진 보다 나은 사회가 이룩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인류학자들은 근대화 이론이 서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의한 현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통과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서구의 것을 궁극의 지향으로 전제한 것이며, 따라서 각 사회마다 특유의 문화에 의하여 삶의 질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⁴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중국의 서구화를 근대화 이론의 시각보다는 중국 개방 이후 서구 및 이미 서구의 영향권 아래에 완전히 들어간 홍콩이나 대만, 남한과의 접촉이 손쉬워짐에 따라 일어난 문화접변의 한 현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문화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란 문화현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⁴⁶⁾ 그러나,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집단이라는 한정된 사회로 눈길을 돌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생적으로 공산주의가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라는 지배세력의 강제에

의해 수용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하나의 외래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이미 중국 동북 지역이라는 공간에 정착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된 발명이지만, 공산주의 문화 역시 하나의 외래 문화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2.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 분석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이 쌓아올린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며 또한 창조적인 생활의 모습이자 업적이기도 하다.⁴⁷⁾ 의생활 역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특히 의복은 대체품이 아니라 보완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생활 문화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문화보다도 더 삶의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즉, 주택이라든가 의례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문화 변동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이행되어 이전의 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지만, 의생활의 경우 이전의 복식 유형이 폐기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의 복식이 생활에 추가되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변 지역 조선족들의 의생활은 문화변동 과정 동안 수용된 다양한 복식 유형들이 공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그들에게는 여전히 전통의 잔재와 외래문화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 문화주변현상과 한복

오늘날 연변 조선족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유형 중 한복은 문화주변현상에 의한 전통의 잔재에 해

44) 유수경, 「한국양장변천사」(서울: 일지사, 1990)에서는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의 복식변천을 고찰하고 있다.

45) 한상복·이문용·김광익, op. cit., p.430.

46) Ibid. p.401.

47) 허명철, op. cit., p.138.

당한다. 청장년들의 회색이나 검은색 바지, 여성들의 통치마, 나이든 여성들의 흰 치마와 머리수건, 남녀의 고무신 등은 개화기와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거리 모습을 연상시킨다.

우리의 전통복식 한복은 개화기 이후 서구문물과의 접촉으로 점점 간소화되었고, 따라서 여학교를 중심으로 긴 저고리와 조끼허리를 단 통치마가 활동을 위해 선호되었다. 이후 일본의 강요로 몸매가 보편화되었지만, 광복과 함께 다시 전통에 대한 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6·25와 전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양복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고, 재생의 길을 모색하던 한복은 결국 1960년대 이후 일상복으로서의 자리를 양장에게 내주고 완전히 예장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연변의 경우는 한반도에서와는 다른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었고, 우리사회가 강력한 서구화의 길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오랫동안 서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앞서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의 문화주변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그들이 주로 이주해 간 일제시대의 의생활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문화로서의 한족의 영향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다만 그들의 영향은 전통복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체할 만한 이점을 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민족 고유성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연변 지역에서는 근래까지도 전통복식으로서의 한복이 일상의 한몫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연변 지역 조선족들에게 있어서도 일상복에서는 한복이 거의 사라지는 경향인 바, 그들 사회에서 한복을 대체해 가는 양복이 어느정도 서구와 흐름을 같이 하는지, 혹 서구의 문화주

변부 역할을 다시 담당하게 되거나 않을까는 계속 주시해 볼 일이다.

(2) 한족의 영향을 받지않은 의생활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폄앗던 것은 한·족과의 문화접변, 공산주의의 영향, 서구의 영향인데, 이들 중 전통적인 한족의 복식은 오늘날 조선족 사이에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한 때, 즉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조선족이 중국국민으로 동화되면서는, 중국식의 차이나 칼라에 숨을 두고 안을 넣은 한족의 우티, 긴 오버형태의 라펠이 넓은 슌다창, 중국인들의 신발인 왕바신과 중국식 모델트 버전인 쟁와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⁴⁸⁾ 오늘날 한족과 조선족은 복식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족의 주복장은 인민복이다. 간혹 나이든 한족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전통복장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족들은 검은 색의 값이 싼 형질 운동화를 주로 신는다. 한족 남성 가운데에는 도시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장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족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모를 쓰고 다닌다. 그러나 조선족은 모자를 별로 즐기지 않는다. 조선족 가운데에는 심한 겨울 추위에 모자없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조선족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데 반해, 한족들 중에는 때가 까맣게 긴 채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⁴⁹⁾

즉, 조선족들은 한족의 문화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의생활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의 전통복식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조선족들의 민족 정체성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데,⁵⁰⁾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서의 민족의식과 비

48) 김순심, op. cit.

49) 한상복·권태관, op. cit., p.207.

50) 이순형,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조사 비교: 한국·중국·소련·일본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1, 1994, pp.55~69).

교하여,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이 느끼는 민족 구별의식 및 이에 따른 민족정체감은 높아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즉, 한족과 조선족은 같은 국가에 속해 있기는 하나, 서로의 전통이 구별되는 엄연히 다른 민족으로서, 한족의 풍속과 조선족의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 아래에서라면, 상대 민족의 것이 특별히 우월하지 않은 이상, 굳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복식은 개인의 정체감을 나타내주는 지극히 가시적인 대상으로서, 전통복식으로 인한 한족과의 차별은 민족정체감을 유지시켜 주는 대표적인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한족의 것을 차용했던 것으로 언급된 우티, 솜다창, 왕바신, 짱와즈 등이 방한의 목적으로 이용된 품목이라는 점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 뒷받침하여 준다.

이와 같이, 두 민족 집단은 적어도 복식에 있어서는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각각 걸었던 변천의 길도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에게 뿐만 아니라 한족에게도 서구의 물결은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고, 전세계가 하나의 복식 유형, 즉 서양복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복식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3) 공산주의와 인민복

공산주의의 산물이자 문화혁명의 잔재인 인민복은 아직까지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문화혁명 당시의 유일한 복장이 될만큼 국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 사회전체에 만연, 익숙해진 인민복은 또 그 기능성과 실용성에 있어서의 간편함 때문에 쉽게 폐기되지 않은 것 같다. 즉, 일제시대, 강제에 의해 착용되기 시작한 몸빼가 한국 사회에 머무르게 된 이유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발명 자체가 이미 국제적

으로 그 위상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개방화, 서구화의 추세에서 실용성보다는 유행과 아름다움을 복식 선택의 우선조건으로 들고 획일화된 외양보다는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다면, 인민복도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갈 것이다.

(4) 서구화와 서양복

오늘날, 연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복장은 서양복이다. 이는 너나할것없이 서구화의 길을 걸었고 혹은 걷고 있는 여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의 현상이다. 연변 지역의 서구화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한 서구문물의 소개와 홍콩이나 대만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화라는 한마디의 용어로 표현되는 이면에는 또다른 역학관계가 숨어 있다. 즉, 중국 동북의 조선족들은 남한보다는 북한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체적이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개방화 정책에 따라 서구문물이 수입되고, 더불어 한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연변 조선족의 복식에는 한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유행하는 저고리, 치마와 치수, 형태, 소재가 유사하며, 서양복, 헤어스타일, 화장에서도 유사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⁵¹⁾

따라서, 그들이 그동안 전통의 준거로 삼고 있던 북한보다 이제는 앞서 서구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아직도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 앞에서, 또한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그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가 조국’이라는 의식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조선족으로서 중국 땅을 밟았던 그들은 이제 ‘중국국민’이 되어, 새롭게 모국과의 문화접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서양복의 착용 현상은 문호개방을 통한 서구 및 홍콩·대만과의 접촉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거리감이 좁혀진 데에서도

51) 김순심, op. cit.

역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내 조선족의 주요한 집중거주지로, 그들의 문화는 그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말미암아 특색있게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유한 문화적 체험을 가진 그들의 의생활에 관심을 가져, 그들의 문화적 체험이 어떻게 의생활에 반영되어 있는지 혹은 그들의 의생활에서 어떠한 문화변동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연변 조선족이 겪은 문화적 체험을 요약해보면, 그들이 이주 당시 가지고 간 전통문화가 존재하고, 그것은 한족과의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접촉에 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개방화 정책에 따라 서구화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의생활에 조명하여, 오늘날 연변 조선족들이 착용하고 있는 한복, 인민복, 서양복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의 착용은 그들이 이주 당시 가지고 간 문화가 고품의 상태로 잔존해 온 문화주변현상으로 설명되나, 점차 일상생활에서는 사라져 가는 경향이다. 둘째, 한족과의 문화접변의 영향은 복식에서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민족정체성의 확고함과도 연결된다. 셋째, 공산주의 영향은 아직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착용되는 인민복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넷째, 서양복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민복을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상, 오늘날 연변 조선족의 복식에는 전통적인 요소와 더불어 문화혁명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많이는 서구화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변 조선족 집단이라는 한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생활은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서 문화의 변화 양

상에 조응함을 보았고, 문화를 구성하고 반영하는 한 요소로서의 복식의 역할을 가늠하여 보았다.

개방의 기간이 오래지 않은 연변이라는 지역은 복식문화를 고찰하기에 흥미로운 대상이었으며, 또한 머지않아 곧 지금까지의 고유함을 상실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본다면 의미있는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덧붙여, 아직은 연변 지역보다 더 폐쇄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복식 또한 가치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본고에서 '전통복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언급하였는데, 중국 조선족과 우리가 함께 하는 뿌리라는 의미에서의 전통과, 우리가 지녀 내려오고 있는 전통, 또 조선족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전통이 모두 '전통'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바, 서로 다른 변천의 길을 걸어온 사회들의 의생활을 고찰하는 작업들의 축적으로 복식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동화·김승철(편),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2), 재출판(서울: 집문당, 1995).
2.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국어대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2).
3. 김순심, 「중국 연변 조선족의 복식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 김영모(편), 「중국조선족사회연구」(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5. 김진구·김순심, “중국 조선족의 복식 연구(I): 혼례복에 관하여”, 「복식」(20, 1993, pp.191~201).
6. 연길화책편집위원회, 「연길」(1992).
7.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집필소조,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 재출판(서울: 한울, 1988).

8. 용정시민족사무위원회 연변관광국 편, 「중국조선족민속사진첩」(중국관광출판사, 1992).
9. 이순형,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조사 비교: 한국·중국·소련·일본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15#1, 1994, pp.55~69).
10. 전경수, 「한국문화론: 해외편」(서울: 일지사, 1995).
11. 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3#4, 1994, pp.73~98).
12. 조복희·이재연·윤종희, “연변 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31#1, 1993, pp.35~44).
13. 조선일보, 1995년 11월 9일자.
14. 한국영상시스템외 2개사 기획, 「특선영상여행: 백두산관광」(서울: 보라씨네마, 1994).
15.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6. 한상복·이문웅·김광익, 「문화인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ABSTRACT

The Clothing Life of Korean-Chinese in Yanbian Area

Yanbian is the area where many Korean-Chinese have settled and have undergone a unique cultu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clothing life of Korean-Chinese in Yanbian in the aspects of the cultural marginality and the effects of other cultures. Nowadays, they have three kinds of dresses: Han-Bok (the traditional Korean dress), In-Min-Bok (the dress of Communist China), and the western dress. Han-Bok is the result of cultural marginal phenomenon, so they preserve 1920s' style which already disappeared in South Korea. In-Min-Bok is the production of Communism which is an 'invention'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Anthropology. However both Han-Bok and In-Min-Bok are gradually disappearing from the daily life. Today, it is quite common for us to see a number of people wearing western dresses on the street. In their clothing life, the acculturation to the Chinese wasn't traced, which may be due to the strong 'National Identity' of them.